

# “영산포, 나주 넘어 호남 중심지 도약”

나주시가 영강동과 영산동, 이창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 정체성 회복과 주민 혜택 확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영산포 지역 3개 동의 통합과 ‘영산포읍’ 설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영산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을 위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과거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폐지됐으며, 이후 5개 행정동으로 분리됐고 현재는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3개 동

지방자치법 개정 통과...‘영산포읍’ 환원 법적 기반 마련  
농촌지역 특례 확대·행정 강화...“지역 활성화 토대 될 것”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행정 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사실상 농촌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동’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농촌지역에 적

용되는 각종 특례와 혜택에서 제외돼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읍 환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영산포읍 환원’ 간담회에는 박연병 행정안전부 차

관보 직무대행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산포읍 환원이 추진될 경우 대학 임시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부여와 건강보험료 감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 개발 추진도 기대되고 있다.

나주시는 개정 법령에 맞춰 실행조사

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옛 영산포의 역사적 자긍심을 45년 만에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며 “영산포가 나주를 넘어 호남의 중심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 영산포 전경

## 광양, 청년 창업공간 ‘달그락 청년공작소’ 개소

공유오피스·실습실·공유주방 마련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광양 청년복합공간이 마련됐다.

광양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라(GO鄉 ALL來)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달그락 청년공작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주요 내빈과 교육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연구소 ‘아작’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시설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달그락 청년공작소는 모듈러 하우스 방식으로 조성된 연면적 140㎡ 규모의 창업

실습공간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생산형 청년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부에는 공유오피스, 실습실, 공유주방,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됐다.

시는 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 ‘청년 창업 달그락 맵그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기 교육생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예담창고에서 창업 교육을 이수한 뒤 ‘달그락 청년공작소’에서 창업 실습을 진행한다.

또한 외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광양시는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달그락 청년공작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주요 내빈과 교육생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을 돕기 위해 1인 1실 형태의 주거공간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달그락 청년공작소는 외지 청년들이 광양에 머물며 창업 고

육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자 기자 kkgjin@gwangnam.co.kr

## 영암 백룡산 숲길 사계절 테마공간 탈바꿈

특화 조림사업 6.1km 구간 경관 고도화

영암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인 백룡산 숲길을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영암군 백룡산 숲길은 평탄한 지형 덕에 보행 약자도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보존 상태가 우수한 천연림이 우거져 이미 지역 내외에서 명성이 높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전남도가 선정한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그 생태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영암군은 이러한 기존의 자연미에 인위적이지 않은 조형미를 더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4개년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가동했다. 기존의 울창한 천연림 사이사이에 계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목을 전

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영암군은 오는 2028년까지 백룡산 내 6.1km에 달하는 전체 구간에 대해 특색 있는 숲길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백룡산은 단순한 등산로 기능을 넘어,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산림 휴양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백룡산이 지난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각 계절이 지닌 고유의 색채를 입히는 과정”이라며 “군민에게는 쾌적한 쉼터,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영암의 명소를 선사하기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 순천, 야간 조명 점검 완료 공원·녹지대 등 238곳 정비

순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명등 1분기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보수작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진행됐다.

도시공원 140개소와 녹지대 98개소, 맨발 걷기길 35개소 등 총 238개소에 설치된 조명등 7300여개를 대상으로 공원녹지와 직원 16명과 읍면동이 합동으로 참여해 일출 후 오후 8시부터 야간 현장 순찰 방식으로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조명등 작동 상태, 깜박임·소등 여부, 기동 파손, 커버 탈락, 전선 노출 등 외형 안전성, 주변 수목으로 인한 조도 저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조명등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조명시설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윤객 증가 시기에 맞춰 조명시설 정비를 완료해 야간 이용 불편을 줄였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담양플뿌리공동체센터,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선정

역량 강화·현장 사업 등 축적된 경험·전문성 인정

담양군플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으로 공식 선정, 농촌공간 정책 실행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시·군 단위 전문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초지원기관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현장에서 종합 발전 계획이 실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그동안 시군 역량 강화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공간계획은 시설 조성이나 토목 중심 사업이 아닌 주거와 산업, 환경, 복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공간 재편 전략이다.

이에 행정 단독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을 구체화할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센터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기초조사 및 공간 진단, 주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 구축, 농촌 협약 연계 구조 설계, 지역 공동체 및 운영 주체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넓혀갈 예정이다.

특히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마을 단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준공 이후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담양=이사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 영광, 수상스키 전지훈련지 ‘각광’

일본 게이오대학·국내 선수들 합동 훈련

영광군이 국내·외 수상스키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일본 게이오대학 선수단과 국내 선수들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영광수상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벌인다. 일본 게이오대학교 선수단과 국내

수상스키 선수들은 개인별 맞춤형 기량 향상 훈련과 실전 중심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훈련은 선수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기술 보완, 체력 강화, 경기 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참가 선수들은

최적의 수상 환경과 훈련 여건을 갖춘 영광수상스키장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특히 영광수상스키장은 우수한 수면 환경과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국 수상스키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선수단이 매년 방문해 기량을 다지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체육 인프라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영암군이 백룡산 숲길 일대에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성 ‘AI·IoT’로 어르신 건강 체크

보건소 전문인력 투입·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

보성군이 어르신들 건강 관리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키로 했다.

보성군이 5월부터 도입하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이다.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으로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과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혈압계·혈당계·체중계·활동량계 등)를 활용폭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성군의 사업대상은 190명으로, 디지털 활용능력 평가와 건강행태 분석 등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사업 기간은 약 6개월 참여자들은 이 기간 측정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전문인력이 투입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오늘건강’ 앱을 통해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건강 목표 달성을 위한 미션 수행과 건강관리 피드백 등을 제공받으며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보성=박형석 기자 eco@gjdream.com